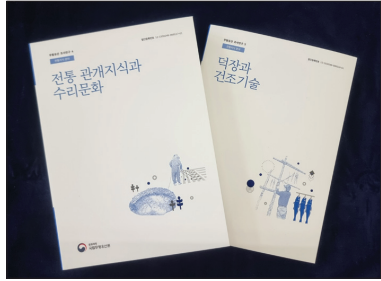


# 농경 · 어업문화 전통지식 · 기술 집대성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 '전통 관개지식과 수리문화' · '덕장과 건조기술' 발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생활 속에서 전해져오는 무형유산을 조사하고 심층 연구해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전통 관개지식과 덕장 건조기술 연구를 집대성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통 관개지식과 수리문화, 덕장과 건조기술 보고서

이번에 발간한 '전통 관개지식과 수리문화'와 '덕장과 건조기술'은 국립무형유산원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에 걸친 현장조사로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과 이후의 심화연구를 거쳐 완성한 결과물로, 농경·어업분야에서 다양한 공동체가 전승해 온 전통지식과 문화적 관습 등이 지역의 생업 현장을 유지하는데 기반이 되어 왔으며,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물이다.

이전에 발간된 '전통 관개지식과 수리문화'와 '덕장과 건조기술' 보고서는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통 관개지식과 수리문화'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면서 공동체가 축적한 '관개지식'과 과정에서 형성해 온 '수리문화'를 집대성적으로 연구한 보고서이다. 전통 관개지식과 수리공동체의 특징부터 보·저수지·소규모 저수시설·저수담·간척 등 여러 현장에서 전승

되어오고 있는 관개문화의 무형유산적 의미를 담았으며, 눈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지형, 기후, 시설에 대한 전승지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조직, 의례 등의 유·무형 유산이 상호 융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연구한 보고서이다. 어를 건조의 역사부터 강원도의 황태와 북어덕장, 동해안의 과메기와 건오징어덕장, 서해안의 굴비덕장, 남해안의 대구덕장 등 각 지역 덕장의 대표 건조기술과 전승주체의 특징, 그 가치 등을 수록하였다. 황태, 과메기, 굴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 건어물은 지형, 바람, 온도 등 자연에 대한 전통지식과 다양한 형태의 전승주체를 통해 생산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농경과 어로 관련 무형유산 연구 보고서에 이어서 앞으로는 민간 신앙 관련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 등에 대한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동체가 생활 속에서 전승해온 다양한 무형유산의 가치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국민과 공유하여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故 이건희 회장 기증 석조문화재 옥외 전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길' 개최



국립전주박물관 옥외 전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석조문화재 옥외 전시인 '내 마음을 돌아보는 길' (상설전시)을 개최한다. 이 전시에서는 이건희(1942~2020) 삼성 전 회장의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유물 중 문인석, 석인상 등 석조문화재 총 35점을 새롭게 선보인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정문 주변을 정원화해 개방한 2022년 이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 역시 시민들이 기존 전시품과 함께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35점의 석조문화재를 함께 감상하며 휴식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한다.

전시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했으며,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1부 '나를 돌아보는 마음'에서는 무덤 앞 좌·우에 배치되는 돌로 만든 조각인 문인석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인석은 공복(公服) 차림을 하고, 머리에는 관을 썼으며, 손에는 홀봉을 들고 있다. 옛사람들은 문인석 앞에서 죽은 자를 애도하고 추억하였으며,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문인석은 죽은 자를 위해 세웠지만, 동시에 산 사람들을 위로하는 석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단한 돌과 같이 견뎌내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옥외 전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길'은 상설 전시로, 국립전주박물관 야외 정원에서 상시 관람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2부 '단단한, 견뎌내는 마음'과 3부 '간절히 모은, 바라는 마음'에서는 다양한 표정과 자세가 돋보이는 석인상들을 감상할 수 있다. 단단한 돌 위에 새긴 인간의 희로애락은 형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얼굴 표정을 한 석인상은 각기 다른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얼굴, 인상을 잔뜩 찡그리며 화를 내는 얼굴,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모은 모습들이 눈길을 끈다.

진안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진안군립합창단(단장 김종필 진안부군수, 지휘 박영근)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진안문화회 집 마이홀에서 제32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군립합창단의 '너 좋은 내일을 꿈꾸며', '함께 걷는 길' 및 '나의 조국' 등 다양한 명곡과 함께, 특별출연 임세경(소프라노), 조봉달(명창), Raddoppia(남성3중창단)의 무대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이 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관객과 함께 교감하고, 합창의 매력을 전할 예정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광 가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립합창단은 1996년 창단해 매년 정기연주회와 합창제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 남원시립국악단 창작창극 '운명의 주사위'

28~30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



남원시립국악단은 남원의 숨은 이야기,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 '만복사저포기'가 원작인 창작 창극 '운명의 주사위'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는 28일과 29일 저녁 7시와 30일 오후 3시에 공연할 예정이다.

남원시립국악단 관계자는 이번 창작 창극 '운명의 주사위'를 통해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 '만복사저포기'를 2023년의 감성으로 기획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금오신화는 한국소설의 출발점이라는 점과 후대소설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중 특히 '만복사저포기'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로 생육신 김시습의 생애와 닮아있다.

사성구 작가는 주인공들이 저포놀이를 통해 인간과 귀신으로 만난 원작과 달리 이미 이승에서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것으로 스토리를 재창조, 이를 통해 사랑의 약속을 위해 죽음을 감을 건너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특히 주인공 양형과 향이는 물론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동지승과 귀여운 귀신 설랑·썩랑·매랑, 영주·봉래·방장의 율하노인 등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특히 30~40대 젊은 예술인들이 대거 스태프로 참여해 감각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왕수 연출가와 김동훈 안무가, 김백한 작곡가 등이 뭉쳐 조선 전기에 쓰인 판타지 소설을 살아 숨 쉬는 동양적 동화로 재탄생시켰다.

배우로는 이승민(진행자 역), 조선해(향아 역), 김선영(동자승 역), 김운선(설랑 역), 고운정(썩랑 역), 박계숙(매랑 역) 등 남원시립국악단 창작부 단원들이 주연을 맡았으며, 국악으로 기본을 쌓고 극의 몰입을 더 할 현장감 넘치는 국악관현악과 화려하고 풍성한 군무로 이반에도 참극 명가 남원시립국악단의 명성에 맞는 공연을 준비했으며, 관람은 6세 이상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약은 전화 (063-620-5583, 6162) 또는 남원시립국악단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시 김경숙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남원시립국악단의 창작 공연은 만복사저포기가 가진 문화적 의미와 역사를 나눌 수 있고,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연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대 박물관,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전시 우수관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서 전시 우수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는 전국 대학박물관 102개의 대학박물관 중 전주대를 비롯해 17개 대학이 참여하였으며, 2018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대학박물관의 문화·연구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대 전달식은 21일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23년 국고지원 사업 포럼 및 성과발표회에서 진행되었다.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이상균) 지난 8월부터 대학박물관 소장품 복식 유물 2,500여 점을 활용하여 K-heritage 그리고 '한복'이란 주제로 기획전시 및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대학 내의 다양한 전공과 협한 연계형 전시와 평생교육원과 공동 기획한 '첫 번째 먹빛 이야기' 수묵캘리그래피 작품전을 시민 작가들과 함께하여 지역 사회 커뮤니티와 협업하고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